

한국미술 차세대 주역 2인

배영환과 김기라. 누군가는 이들을 ‘한국 미술계의 허리’, ‘차세대 주역’이라 부른다. 이들은 설치·영상·회화·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우리가 사는 시대를 주목한다. 이름 없는 것, 낮고 작은 것,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 넓고 깊게 변화하고 있다. 나란히 개인전을 여는 이들을 나란히 인터뷰했다.

“유행가로 표현한 한국사회 모순, 여전히 유효”

‘유행가- 엘리제를 위하여’전 배영환

배영환(43·사진)과의 인터뷰는 하나의 투쟁이었다. 그는 언론을 불신했고, 공들여 말을 골랐으며, 미술과 미술가에 대한 세상의 규정과 오해 혹은 판단중지와 싸우고 있었다.



사진 | 삼성미술관 플라토 제공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 붙은 이름은 ‘유행가- 엘리제를 위하여’다.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두루 모았다. ‘유행가’는 그가 즐겨 사용해온 개념이다. 1997년 첫 개인전 제목이 ‘유행가’였으며 1999년, 2002년에도 같은 이름의 개인전을 열었다. 깨진 소주병과 알약 등 일상의 남루한 재료를 동원해 1970~1980년대 유행가를 시각화했다. 그건 엄숙한 미술계의 권위에 대한 반발인 동시에 동시대인에 대한 세심한 위로였다. 그는 2012년에도 여전히 한국사회를 바라보기 위한 은유로 ‘유행가’라는 “문화적 할부”를 차용한다.

“한국 사회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 압축 성장의 여러 가지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사춘기 때 나타나는 징후예요. 그런 의미로 유행가의 속성에 기대는 것이죠. ‘유행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엘리제를 위하여’는 더 이상 베토벤의 클래식 음악이 아니다. 엘리베이터, 후진하는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하찮은 유행가다. 그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비슷해 보였다”고 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가치 있는데, 서로 하찮게 사용하고 자기 비하가 유행이 되는 문화가 시대 정신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의 최신작은 이처럼 ‘서로를 하찮게 여기는 시대’에 대한 반발이다. 그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내면에 존귀함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전시장에서 처음 만나는 ‘황금의 링- 아름다운 지옥’은 지옥 같은 도시에 대한 은유다. 흥미롭게도 로댕의 ‘지옥의 문’ 앞에 놓였다. 텅 비어있는 황금빛 권투 링. 텅 빈 걸 보면 ‘비어있구나’ 느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도시가 지옥같았습니다. 휘황하고 아름다워서 오는데, 오면 매일 투쟁하고 죽어나가죠. 링 안은 비어있지만 그걸 보면서 현대인들은 싸워야 한다는 강박을 갖습니다.”

2010년작 ‘오토누미나’ 시리즈는 인상적이다. 자신의 뇌파를 측정한 그래프, 우연히 주물러 만든 도자 조각은 동양의 신성한 산의 형상을 닮아 있다. 그는 “자연과 나의 합은 어색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그 생각이 자꾸 반추되면 많은 게 해결된다”고 했다.

지금 이 시대의 예술에 대해선 “여러 가지가 혼재하며 나쁘다고도 좋다고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걸 일차적으로, 있는 그대로 피부로 느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5월20일까지. 1577- 7595

“이념·종교가 억압이 되는 세상 ‘공동선’은 뭘까”

‘공동선- 모든 산에 오르라!’전 김기라

김기라(38·사진)는 말이 많았으며 그의 말에는 ‘레퍼런스’도 많았다. 마치 복잡계 혼돈 속의 그의 작품 같았다. “세상의 이념, 주의, 종교 등은 모두 공동선을 추구해 만든 건데, 오히려 망령이 되어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약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공동선)인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두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개인전의 제목은 ‘공동선- 모든 산에 오르라!’다. 지난 8년간 인도·중국·캄보디아·독일·영국 등 10여개국을 다니며 모은 신화와 성상의 이미지를 모았다. 세계의 신화와 종교의 이미지들은 놀랍게 닮아 있다. 작가는 이것을 감각적으로 해체해 재구성했다. 머리와 다리와 팔이 각각 다른 신의 형상으로 이뤄진 이미지의 콜라주. 성스러움으로 위장됐던 이미지는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괴물로 재탄생한다. 이는 배트맨·스파이더맨 등 슈퍼 히어로들을 해체해 재결합, 괴물을 만든 2009년 ‘슈퍼 히어로즈 몬스터즈’ 시리즈를 떠올리게 한다.

“신은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원류는 인간의 상상이 신화화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망령입니다.”

설치, 영상, 조각 등 ‘멀티 아티스트’로 불리는 그는 오브제, 사진 등 기존에 쓰지 않던 방식을 실험 중이다. 전시장에는 콜라주를 닮은 드로잉과 각국에서 수집한 골동품들도 함께 전시됐다. 애초 드로잉을 기반으로 실제 조각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그는 “개념이 있다면 형식은 관계 없다”며 “오목이 아니라 바둑을 두는 방식”을 말했다.

“포석을 다르게 두지만 끝나고 나면 하나의 여정일 뿐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해요. 그래서 과정을 낚것으로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라는 줄곧 개인과 거대 권력의 역학관계에 주목해왔다. 특히 자본주의의 욕망과 스펙터클을 재치있게 비틀었다.

그의 개인전 제목만 늘어놔도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렵듯이 감이 온다. ‘표준’(2002), ‘주변 혹은 전체’(2003), ‘신기루 궁전’(2007), ‘선전 공화국’ ‘황금 크리스탈’(2008), ‘슈퍼메가팩토리’(2009). 이번 작업은 자본주의 비판에서 보다 근본적인 탐구로 나아가는, 또 다른 개념을 전개하는 시작이라 할 만하다.

김기라가 한 시간 남짓한 인터뷰 시간 동안 가장 여러 번 반복한 말은 이 말이었다. “조화와 공존 없는 번영은 폭력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공동선은 이 말 속에 있다. 전시는 29일까지. (02)708- 5015

<글·사진 이로서 기자 ro@kyunghyang.com>

입력 : 2012- 03- 05 20:32:51 | 수정 : 2012- 03- 06 11:08:37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
